

東大新聞

발행인: 김진우, 편집인: 김진우, 발행처: 동국대학교, 발행일자: 1991년 11월 20일, 발행부수: 1000부, 구독료: 10000원, 광고료: 10000원, 전화: 100-715, 팩스: 100-714

제 1088호 (주간) 1991. 11. 20 (수요일) 1991년 (단기 4324년) 11월 20일 (수요일) [1]

제24대 총학 정·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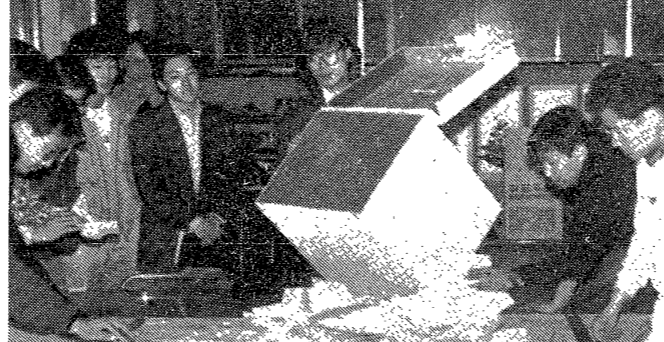
경주캠퍼스 전충근·노수면조 76표차로 이겨

제24대 총학생회 정·부회장에 '새로운 실천, 열린 학생회'의 당당함으로 격전의 날, 민중권력수립 그 찬란한 승리의 함성으로 질주하라 / / 노동태방의 불패전사 청년동약이여 / 라는 슬로건으로 임후보한 기호2번 이광집(정치3)·윤오순(정치4) 조가 2천8백62표(51.44%)를 획득해 기호1번 조한근(국문4)·홍정희(국교4) 조의 2천7백2표(48.56%)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광집·윤오순조 당선

경주캠퍼스 전충근·노수면조 76표차로 이겨

제24대 총학생회 정·부회장에 '새로운 실천, 열린 학생회'의 당당함으로 격전의 날, 민중권력수립 그 찬란한 승리의 함성으로 질주하라 / / 노동태방의 불패전사 청년동약이여 / 라는 슬로건으로 임후보한 기호2번 이광집(정치3)·윤오순(정치4) 조가 2천8백62표(51.44%)를 획득해 기호1번 조한근(국문4)·홍정희(국교4) 조의 2천7백2표(48.56%)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광집(정치3)·윤오순(정치4) 당선자

◇이광집(정치3)·윤오순(정치4) 당선자

이광집(정치3)·윤오순(정치4) 당선자

이광집(정치3)·윤오순(정치4) 당선자

내일부터 입학원서 접수

진학상담실등 입시지원업무 가동

92학년도 전기 신입생 입학원서접수가 내일(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시작됨에 따라 서울·경주캠퍼스 교무처는 체육관내에 원서접수창구를 설치하고 각 계열별로 원서를 받는다.

이런 접수기간동안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원서를 교부하고 접수를 받는다. 입학원서를 우편접수하고자 할 때는 입학원서와 전형료(일반계:2만5천원, 예·체능계:3만원)를 동봉해 지원하고

한·소 예술교류 세미나

소련동포 예술활동조명

한국예술의 소련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한·소 예술교류 세미나'가 지난 18일 오후5시에 예술대 연영과학회와 한국예술평론가협회(회장=유신·음악평론가) 공동주최로 본관(C101)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교수 학생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진(소련동포 작가), 한 안드레이(소련 소설가)씨의 '소련동포예술 활동의 현황 및 교류방안'과 '최근 소련 젊은 작가들의 문학

신규 교수 채용안 확정

1학기 불교아동학과등 16개학과

'92학년도 1학기 신규교수채용계획이 지난 13일 최종확정됐다. 교무처에 따르면 내년 1학기에는 경주 의과학계를 제외하고 16개학과에 16명의 교수를 채용한다.

경주캠퍼스에서는 서울 캠퍼스와 영문과등 8개학과 8명, 경주 캠퍼스가 불교아동학과등 8개학과 8명에 한의학과 한방내과 학과가 1학기에 교수채용이 이뤄지며 신설된 기계공학과 신규교수는 2학기에 채용될 계획이다.

국제불교 학술회의

주제 '평화...불교의 역할'

본교 불교문화연구원(원장=채인환·선학)은 대한불교 화엄회 대원사(주지=기대원)와 공동주최로 '평화를 위한 지도자와 불교의 역할'에 관한 제5차 국제학술회의를 지난 18일부터 내일(21일)까지 4일간 서울 해라문 워커히 호텔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한국, 미국, 일본, 소련, 중국 등 모두 13개국이 약 60여명의 평화학자, 문인, 정치·사회·종교학자, 불교연구자, 승려, 인문학자들이 참석해 논문발표, 토론, 의견교환, 등의 학술행사를 갖고 있다. 한편 발표된 학술논문들은 논문집으로 간행돼 전체계에 배포될 예정이다.

가치기준

가치의 본질을 따져들이 가면 정오의 대립, 대소와 고저의 차이가 첨예하게 생기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아름다운 것에 대한 추악한 것, 참된 것에 대한 거짓, 건강에 대한 질병, 안이함에 대한 그릇소 등일 것이다.

가치기준

가치의 본질을 따져들이 가면 정오의 대립, 대소와 고저의 차이가 첨예하게 생기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아름다운 것에 대한 추악한 것, 참된 것에 대한 거짓, 건강에 대한 질병, 안이함에 대한 그릇소 등일 것이다.

가치기준

가치의 본질을 따져들이 가면 정오의 대립, 대소와 고저의 차이가 첨예하게 생기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아름다운 것에 대한 추악한 것, 참된 것에 대한 거짓, 건강에 대한 질병, 안이함에 대한 그릇소 등일 것이다.

가치기준

가치의 본질을 따져들이 가면 정오의 대립, 대소와 고저의 차이가 첨예하게 생기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아름다운 것에 대한 추악한 것, 참된 것에 대한 거짓, 건강에 대한 질병, 안이함에 대한 그릇소 등일 것이다.

가치기준

가치의 본질을 따져들이 가면 정오의 대립, 대소와 고저의 차이가 첨예하게 생기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아름다운 것에 대한 추악한 것, 참된 것에 대한 거짓, 건강에 대한 질병, 안이함에 대한 그릇소 등일 것이다.

가치기준

가치의 본질을 따져들이 가면 정오의 대립, 대소와 고저의 차이가 첨예하게 생기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아름다운 것에 대한 추악한 것, 참된 것에 대한 거짓, 건강에 대한 질병, 안이함에 대한 그릇소 등일 것이다.

동국대학교

1992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전기·후기 분할)

서울캠퍼스
주소: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전화: 대 표(02)260-3114 교무과(02)260-3031-2

경주캠퍼스
주소: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대 표(0561) 2-0131-6 (0561)43-1011-20

계열	학과	모집인원	계
서울캠퍼스	불교	40	40
	인문	20	20
	인문	10	10
	인문	10	10
	인문	40	40
	인문	50	50
	인문	30	30
	인문	30	30
	인문	30	30
	인문	30	30
경주캠퍼스	불교	40	40
	인문	40	40
	인문	40	40
	인문	40	40
	인문	40	40
	인문	40	40
	인문	40	40
	인문	40	40
	인문	40	40
	인문	40	40

원서접수 장소 ① 서울 및 경주캠퍼스 ② 서울지역: 종로서적(종로2가) 동화서적(강남역) 교민문고(전호동 4거리) 서울문고(상봉동 무연동) 한기문고(강남고속터미널) 영동문고(영동로역) 월드문고(신사동 4거리) ③ 인천지역: 한림학원(주안) ④ 부산지역: 동서서적(서천로) ⑤ 각지역 운영: 표충은행(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수원, 인천, 강릉, 제주) 삼일은행(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수원, 인천, 강릉, 제주) 국민은행(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수원, 인천, 강릉, 제주) 신한은행(영일1부, 신사, 부산, 대구, 대전, 전주, 수원, 인천, 강릉, 제주)

사설

실천속에서 대중적지지 이끌어야

학교를 한차례 흔들어 공방을 벌였던 양부보의 선거결과에 비해 선거이후 서포장에 걸려와 선거과정에서 평가해 내리는 모습은 씩씩하기만 하다.

보통에 걸친 세력에 유세와 공회회, 그리고 선거운동원들의 홍보전, 이것이 학생회 선거의 전부는 아닐것이다. 임박처럼 얘기 하지만 선거는 1년사업평가자리를 다음 학생회사업을 내오는 정책생산의 장이라 말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선거의 의의를 되뇌이는 것은 표모이기 선거에 그쳤다는 절박때문이다.

총8천8백70명의 유권자중 63.7%인 5천6백52명이 투표한 이번 선거는 먼저 올바른 정책생산과 이의 대결이 아쉬웠으며 정책보다는 문헌대의 공연, 후보자의 외향이 관심 대상이 된 듯하다.

92년 선거와 학내복지시설안을 제외하면 고민된 정책과 공약이 없었다는 것도 이번 선거에서 지적될 수 있다.

둘째 함께하는 선거, 열려진 대중투쟁의 장으로 역할을 해내는데 미흡했다.

선거에 무관심한 다수 학생들을 선거에 참여시키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특

올바른 선거를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위상과 조직체계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함을 느꼈다.

세계 올바른 사업평가의 장이 되지 못했다. 일례로 이번선거에 가장 영향을 끼친 학생복지위원회사업은 의욕, 폭력으로 이어지는 부당표현수의 희생물이 됐다. 지지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평가는 원칙과 관이 제시되어야 한다.

제24대 총학생회는 내년도 힘집사업을 펼치는데 준비를 소홀히해선 안될것이다. 집행부구성과 총노선을 내오는데 있어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담아내야 하며 이는 학생들의 정서에 기초해야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마무리된 이번 선거를 다시 평가해 내고 전망을 내오는것 뿐만 아니라 당장 목전에 닥친 재단투쟁에 체계를 세워 대처해야 한다. 이번 재단이사장선출시기와 관련된 재단 혁신은 내년 학생회사업의 편도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92-93년 권력재편기와 재단혁신을 축으로 하는 학원자주화투쟁에 이번 선거가 좋은 자기각성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쌀시장 개방만은 안된다

지난 12일부터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차르회의)가 많은 부담을 안고 채 막이 내려졌다.

당초 이번 총회는 쌀시장 개방을 UR협상에서 우리입장 반영, 중국과의 분쟁협력 전이, 지역내 경제협력증진 등을 우리의 주된 관심사로 설정했으나 모두 뒷전으로 밀리고 미국등 강대국의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으로 전락해 버렸다.

쌀시장개방 문제를 놓고 이것을 반대하는 한국, 일본등과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 오스트레일리아등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결과 '쌀시장을 포함한 각 분야별 UR협상을 연내에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별도의 UR선언을 채택하고 말았으나 '다년간 무역 체제에서 강화된 규범과 규율에 입각한다'라는 미국의 통상법 수정301조에 대한 일방적 보복을 제한하는 규정이 빠져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있다.

한편 미국의 무역대표부 대표 칼라일스는 예전부터 한국시장개방문제로 치마바람을 불고 다닌 것으로 유명인데 '최근 한국의 과소비 억제운동은 사실상 보호무역주의의 한국을 표현'이라 주장하고 UR협상은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며 이번 회의를 농수산물 개방의 원인이 걸려있는 주요상대국을 설득하는 기회로 삼으려 하는 미국의 의지를 실

현명했다.

우리나라에 있어 쌀이란 것은 대대로 이어 내려온 민족의 업인 동시에 6백만농민의 생계수단이다. 더구나 창고에 쌓여 그득하고 수매가도 형성없이 낫아 수확을 거두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빛을 지고 있는 농부들의 형편을 생각한다면 쌀수입이란 어불성실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런 특수성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감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어찌 감히 200여년의 역사가 5천년동안 땅을 보듬고 살아온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그들로서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속수무책으로 강대국의 논리를 받아들이지만 말고 민족자주적으로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행하게도 한국과 일본등 이해를 같이 하는 국가들이 개방을 요구하는 국가에 실력을 하는 등 압력에 공동대처하기로 합의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농민을 비롯한 여러시민단체들이 쌀수입만대시위를 벌이는 것과 함께 정부와 힘을 모아 우리민족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

일린글터

신분증인 '학생증'을 소중히 간직하자 재발급절차의 간소화는 학생들 노력으로

학생증이든 본인의 신분증으로 스스로 그 가치를 인정하여 자긍심을 소중히 간직하여야 함에도 단돈 천원이면 언제든 지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이점(?)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만약 학생증 재발급 요건이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만큼이나 까다롭고 복잡하다 해도 학생증을 그렇게 함부로 취급할 수 있을까.

요즘 각 학교마다 학생증 재발급요건을 강화해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학생들 스스로 행정절차의 간소화, 편의성 등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함을 알아야 한다.

정말 우리 학생들의 소중한 학생증이 슬쩍이나 당구장 등에서 나뒀거나 먼지속에 파묻혀 지고, 따뜻한 품속에서 사라짐을 당한 학생들을 단순히 천원의 가치에 비교해 버리는 생각들이 마치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황금만능의 사고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닌지 바란다.

윤 건택(학생처 장학과)

불법주차가 공간문제에 한류 차가 부의 '가치척도'라는 인식 버려야

학내 환경문제는 한두해 얘기 아니다. 예교심의 타락(?)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여기 저기 박힌 쓰레기와 무질서한 대자보등 저지러운 동안, 통행로에 강의실 책상을 내놓고 줄을 매고 죽꾸를 하는 풍에 마음을 좁이며 중중걸음을 쳐야 하는 동안, 이런 문제가 산재해 있는 가운데 신중이 나타났나. 딱딱한 차들의 교내 주차공간이 바로 그것이다. 교내 차량통행은 교수, 교직원에게만 해서는 안되고 학생들에게도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정문 앞에서는 걸문(?)과 함께 차량통행이 있다지만 실속은 없는 것 같다. 또 이심각성에 한 뿔 찌르면 되는 본교주요 빌딩 아저씨, 이층마들이 출근길에 차를 학내 주차해 놓고 퇴근시간이 되면 몰려와서 타고 간다는 '암계주차'이다.

이렇게 우리 여러 이유들로 인해 우리의 공간을 침식당하고 있다. 이것은 시내 비싼 주차료도 문제지만, 대책없이 중형차들을 받아들여내고 사회환원은 하지 않는 기업측에도 문제가 있다. 또 많은 서민들은 버스의 지하철과 같은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철은 운영비 문제로 차비만 올랐을뿐 전차를 늘리려는 커녕 여전히 '지옥철'로 운영하고 있고 시내버스를 쾌적서비스화한다는 등의 환상(?)적 방안을 보이는 정부측에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주적으로 교내 공간확보를 위해 단대, 총학 차원에서, 차를 부의 가치척도라는 고정명칭 인식을 타파하는 캠페인과 함께, 스티커착용을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오는 전진(?)할 것을 당고해야한다. 또 정부는 '뿌린 씨를 거두어 들인다'는 뜻으로 대중교통확보와 대중교통을 마련하고, 대기업들은 사회환원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내 경유기 사용 차량은 더불어 살 자격이 없으므로 비켜주시길 바란다.

여러 사람들이 넉넉하고 여유 있고 캠퍼스의 분위기를 맑고, 사랑을 나누고 나라를 격조하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내의 공간확보는 되어야한다.

김 경 숙(사범대 교육학과)

연구활성화위해 실질적지원필요

대학은 사회의 양심을 배울 하는 곳이며, 학문과 사상의 자유, 그리고 교육과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곳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대학내에 전문화된 연구소를 두며, 현재 우리학교 내에도 22개의 연구소가 활동중이다.

1962년에 불교문화연구소가 설립된 이후로 사회과학연구소 10개, 문화관련 3개, 정치관련 2개, 농업관련 1개, 의학연구소 1개 등으로 4년째 대학에 있는 연구소 수만 갖고 있을뿐, 실질적 활동과 역량은 매우 열악하다.

우리학교는 총821명의 교원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절반도 못미치는 277명의 교수밖에 없다. 예로 경상대는 한교수당 백명의 학우들을 가르쳐야 한다. 또 교수들은 한 주일이 13~16시간을 가르쳐야만 한다 (단, 법대는 9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와같이, 연구의 주제와 리더가 되어주어야 할 교수님들이 과도한 수업에 임대일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심도있는 학술연구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또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학교에서 지원되는 곳은 단지 5개 연구소에 불과하며, 재단에서 지원하는 불교문화연구소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8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앙에서 사회과학연구소는 10개인데 비해 인문과학연구소는 4개 밖에 없다. 이것은 학문의 균형발전에 반할뿐 아니라, 인문과학분야의 오랜 역사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이유도 될 것이다.

또 경제, 회계연구소등 4개는 아직도 어떤 논문이나 결실물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학교의 정세는 대학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데에도 큰 원인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당국은 말로만 지원이 아닌 인적, 물적,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학우들의 열정을 평가해 내고, 내년도 사업에 조명을 받는다 의미에서 몇가지 짓고 넘어갈 점이 있다.

첫째, 이번 선거도 기존 선거와 마찬가지로, 기성정치의

대중사업 이끄는 총학되길

지난 16일 새벽 3시 40분경, 이번 제24대 총학생회 선거의 당락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배배의 아픔을 와신상담의 의지로 감수하겠다는 노력과, 승리의 기쁨을 투쟁의 열기로 배가시키겠다는 결의는 기호, 2배인 듯 모두가 새벽하늘의 동우를 향해 모이게 했다. 그리고 신비열사이에 대상으로 다짐을 하였다.

그 다짐속에서 그간 선거에서 보여왔던 서로간의 불신과 냉대와는 달리, 변혁의 몸짓 속에서 찾아가 될 수 있겠다. 기대를 걸어 볼 수 있겠다. 지금은 이번 제24대 총학선거운동을 평가해 내고, 내년도 사업에 조명을 받는다 의미에서 몇가지 짓고 넘어갈 점이 있다.

첫째, 이번 선거도 기존 선거와 마찬가지로, 기성정치의

총학편이라고 지적되는 부분을 극복해 내지 못했다.

둘째, 과학형, 단과대학총학회가 전혀 구상점이 되지 못하고 위로부터의 전제지는 일방적인 사업속에서, 지금은 과사업과 단과대 사업은 거의 미비가 된 상태이다.

셋째, 첫번째 지적과 같은 맥락으로 선거비용의 과다와 공약의 남발속에서 올바른 학생회사업을 위한 선거가 아닌 당선여부에 맞추는 선거가 되었다.

이제는 서로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서로의 구상점을 찾아야 할 것이며, 24대 총학생회가 확실한 대중사업체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는 상호비판과 한 태도 안에서 함께 투쟁해야한다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장 용 준(사회대 정외과)

東國漫評

송태영

지금부터 학생회 이직작업을 준비할 때입니다.

교수기고

대학내의 건물 신축사업은 대학발전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국별관 신축문제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동국별관신축은 현재의 캠퍼스 내에서 거의 마지막에 가까운 대규모 건축공사가 된다는 점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본교는 개발제한 구역에 해당되어 건축이 극히 제한되고 있으므로 이 소중한 기회를 동국발전의 최대공약수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동국별관은 외부와 접하고 있어서 그 위치가 동국의 얼굴에 해당하는 자리이다. 그 옆으로 동국별관은 건물의 외관이나 그 용도에 있어서, 동국의 수호천군과 무관하지 않으며 동국의 동국과 무관하지 않으며 동국의 기상을 상징하고 웅변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본교의 중앙도서관은 1961년에 신축되었는데 당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가운데 정상급이었다고 한다. 1980년대에는 학생수의 증가에 따라 증축되었던 서울대 대학들 가운데 최초로 예민한 냉난방장치

같은 것들이 있다. 앞으로 도서관은 개선해야 한다. 또 선진국이나 국내 일부대학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완결형이나 지방대학과 비교하여 심각한 것은 아니다.

다만 한가지 문제점으로서는 동국별관 자리의 신축건물을 도서관으로 전용한다는 것은 공간이 부족한 우리대학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편협한 견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도서관 신축을 제안하며

현재 우리대학 중앙도서관의 열람실은 1층7백16석으로 교육부 대학열람기준량의 86%라고 한다. 이외에도 시교의 인력이 부족하여 장서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이와같은 이유에도 개선된 도서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교의 중앙도서관은 1961년에 신축되었는데 당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가운데 정상급이었다고 한다. 1980년대에는 학생수의 증가에 따라 증축되었던 서울대 대학들 가운데 최초로 예민한 냉난방장치

같은 것들이 있다. 앞으로 도서관은 개선해야 한다. 또 선진국이나 국내 일부대학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완결형이나 지방대학과 비교하여 심각한 것은 아니다.

다만 한가지 문제점으로서는 동국별관 자리의 신축건물을 도서관으로 전용한다는 것은 공간이 부족한 우리대학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편협한 견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목먹골

- 한대요 글씨 - 우리 글씨는 담배도 뚫고 술도 안마시고 운동도 한대요. 다 겹도 부 덕보요. P.S24일에 대대적인 카니발행사가 있습니다.
- 33기 후배일동 - 동국대학 동문회와 외국대학과 기우회의 제3회 교류전을 축하합니다.
- 25일은 지교 '91의 영원한 대졸생이 세상에서 첫발을 보이며 '명망'하고 짙은 날이고요. 또 항상 '의식'인 별칭이 부의직적으로 태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두남정비의 탄생을 축하하여 겨울이 오기전에 꼭 따뜻한 사랑 이루길 바랍니다.
- 입학'91이여 / 이제 시험이다. 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잘 봐라!
- 내대내 / 최희선, 보경, 진자가 공인한 사랑하는 세라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 90노준 -
- 신우부가 한해를 정리하면서 창립제와 대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동국들과 후배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특히 시험에서 선전한 70-71기들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응원해준 규영, 혜경, 은경에게도 고마움을.
- 선우부장 - 동국대학 동문회와 외국대학과 기우회의 제3회 교류전을 축하합니다.
- 성준이가 썼다 -
- 진현이가 -
- '91동기 일동 -
- SK -
- '90노준 -

동학 광장

- 탈선원들에게 -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당선들의 의지로 극복하리라 믿어요. 재성이, 용석이, 근원이, 민용이, 지혜, 상용이신세 사랑하고 믿습니다. 아잠 미영이영도
- 진이 -
- 선우부장 가시는 걸음걸음은 영인정 학과를 빛내 주십시오. 여기 후배들이 따뜻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동업경제학과 졸업생총회 -
- '91동기 일동 -
- 아르바이트생 모집 - 동국특강동 동국관(L301, L401) 난방, 마이스터, 설문조사 하실분, 혜택을 수강료무료와 교재지급, 8주10만원입니다. 두분만 오세요.
- 우조야 / 2학년학기 과제에요! 당성원정 축하합니다. 앞으로 그걸(?)도 성공 하길 바래.
- '91동기 일동 -
- 진현이가 -
- '91동기 일동 -
- SK -
- '90노준 -
- 탈선원들에게 -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당선들의 의지로 극복하리라 믿어요. 재성이, 용석이, 근원이, 민용이, 지혜, 상용이신세 사랑하고 믿습니다. 아잠 미영이영도
- 진이 -
- 선우부장 가시는 걸음걸음은 영인정 학과를 빛내 주십시오. 여기 후배들이 따뜻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동업경제학과 졸업생총회 -
- '91동기 일동 -
- 아르바이트생 모집 - 동국특강동 동국관(L301, L401) 난방, 마이스터, 설문조사 하실분, 혜택을 수강료무료와 교재지급, 8주10만원입니다. 두분만 오세요.
- 우조야 / 2학년학기 과제에요! 당성원정 축하합니다. 앞으로 그걸(?)도 성공 하길 바래.
- '91동기 일동 -
- 진현이가 -
- '91동기 일동 -
- SK -
- '90노준 -

은방골

- 진현이가 -
- '91동기 일동 -
- SK -
- '90노준 -
- 탈선원들에게 -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당선들의 의지로 극복하리라 믿어요. 재성이, 용석이, 근원이, 민용이, 지혜, 상용이신세 사랑하고 믿습니다. 아잠 미영이영도
- 진이 -
- 선우부장 가시는 걸음걸음은 영인정 학과를 빛내 주십시오. 여기 후배들이 따뜻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동업경제학과 졸업생총회 -
- '91동기 일동 -
- 아르바이트생 모집 - 동국특강동 동국관(L301, L401) 난방, 마이스터, 설문조사 하실분, 혜택을 수강료무료와 교재지급, 8주10만원입니다. 두분만 오세요.
- 우조야 / 2학년학기 과제에요! 당성원정 축하합니다. 앞으로 그걸(?)도 성공 하길 바래.
- '91동기 일동 -
- 진현이가 -
- '91동기 일동 -
- SK -
- '90노준 -

◇미국식 상업방송의 전형 '서울방송'

상업적 탈정치 성향... 체제안주 유도

"못할 것이다. 방송을 바꿔보자."
현정권의 '상업사업 방송 만들기' 전략은 방송과의 전쟁-방송민주화 운동전쟁-을 통한 치밀한 방송구조 개편작업이 최종 목표였다. 정권이 방송지형의 변화를 끌어내야 했던 필요성은 방송민주화운동으로 인한 방송통제력의 약화 국면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보인다. 꼭 국민의 방송이기를 지향하는 방송민주화는 5공연립인 최진, 방송사내 비리척결, 편성권 독립, 방송 본부장-국장의 복수추진제, 민주프로그램의 방영 등 낮은 수준이나 진정한 방송자유를 쉼 없이 키워 왔다.

정권재정치의 효과적인 이데올로기 기제인 방송사를 다시 정권의 의도대로 이해해야 할 절박함이 방송구조개편의 숨은 배경이었다. 현정권방송은 관제방송으로 변화시키고 상업방송은 탈정치화시켜 오락매체로 꾸미는 것이 목표가 된 것이다. 실제로 91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KBS와 MBC는 프로그램의 분할통치되면서 방송노조의 약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고, 오는 12월 9일 개국하는 서울방송(SBS)은 탈정치화된 오락프로그램으로 배치된 방송물을 전파에 실어 보낼 예정이다.

결국 현재의 방송구조는 방송노조와 사회민주화세력의 대응에도



◇오전 12월 9일 서울방송(SBS) TV가 개국하면 한국방송사의 최대 경쟁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마와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드라마의 경우 그 내용과 목표는 뚜렷하다. 즉 중산층여성 취향의 가정·부부드라마가 대부분이다. 이는 상품구매력이 큰 중산층 가정주부를 공략하여 시청률을 올리고 여성의 파편화된 개인적, 가정 중심의 이기적 사고방식, 시대의식이 아니고는 찾아볼 수 없는 평준화된 사회적 배분을 내용으로 하는 탈정치 성향의 강화를 의도하는 것이다. 정보와 오락을 함께 제공하겠다는 퀴즈 프로그램은 시청률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퀴즈 프로그램은 시청률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퀴즈 프로그램은 시청률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뉴스프로그램의 경우 보도물의 오락화라는 미국식 상업방송의 형식이 등장할 예정이다. 곧 딱딱한 뉴스를 재미있는 뉴스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개그맨과 여성연예인을 등장시켜 화제와 여성뉴스, 날것을 보도하겠다는 것이다. 접미한 사회 갈등과 만연되는 물질만능주의, 커

상상을 초월한 극우이데올로기 퍼붓는 'SBS'

오락성위주의 방송 편성 다른 방송까지 저질 우려
첨예한 사회갈등 감춘 채 상품광고에만 치중

불구하고 정권의 의도대로 편이 계획되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주)태영이 새 상업방송의 운영주체가 되었음을 온갖 의혹의 소산으로 비판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시각이다. 이 기업이 권력과 광범위한 유착관계를 맺고 있고 방송경영 능력이 없으며 현정권에 정치자금을 제공했고, 따라서 신정 이전에 이미 내정되어 있었다는 주장들이 난무했지만 비생산적인 비판이었다. 상업방송의 주인이 태영 아닌 어떤 주체가 나왔을지라도 방송민주화와는 무관한 것이다. 국민대중의 정서는 이미 태영이 아닌 SBS가 제공할 프로그램이 과연 기존 방송과 어떤 차별성을 가진 상품일지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의 차원으로 나아가 있다. 모든 언론매체가 요란하게 방송면을 장식한 SBS의 출범에 따른 각종정보가 상업방송의 정치적 본질을 망각시키는 것이다.

드러난 상업방송의 실제
우선 민영방송이라는 호칭의 허구성을 파악하자. 특권자본이 이윤추구 논리에 따라 방송상품을 만들고 광고주에게 프로그램을 판매하

는 과정에는 민이 존재하지 않는다. 민영방송 또는 민간방송이란 개념은 편이 약이고 민이 선이라는 왜곡된 대질구조를 끌어내어 독점자본의 이익에 기여하는 상업방송의 본질을 은폐하고 있다. SBS는 상업사업방송일 뿐이다.

이미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서울방송의 라디오프로그램은 상업방송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 특징은 '이념의 오락화'와 '노골적인 상품(자본)의 홍보'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18일 방송된 SBS의 '지구촌24시' 프로그램 중 'SBS텔레스크로니'는 소련의 젊은이, 군복무, 결혼, 연애에 관한 대화 도중 "... 소련여성들은 피부가 예뻐거든요. 하하하 죽여준단 말씀이야. 그야말로 회고 과광고, 살결이 끝내준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냥 홀라당해서 인제 소련여성하고 결혼을 하는 예가 많거든요..."라는 천박하고 말초적인 언급이 나왔다. 사회주의 국가의 생활상이 선정적이고 흥미위주의 풍자거리로 왜곡되어 한국상업방송의 전파를 타는 실상을 극명히 보여준 것이다. 또한 15분 간격으로 방송되는 뉴스에서는 (4월9일

~16일) "대우조선이 개발해 다음달부터 시판하는 경승용차 티코는 한 번 연료를 가득 넣으면 서울과 부산을 왕복으로 주행할 수 있으며..." "진로도엔텔라가 북경기타엔텔라를... 대부분의 상품가격을 20% 내지 30%씩 내리 판고 있다고..." "극단 산물들이 무대에 올린 연극... 주연과 각색을 맡은 윤석희의 연기가 관중을 사로 잡은 것으로..." 등의 방송내용에서 보듯이 노골적인 상품, 공연장 소개를 하고 있다. 광고가 아닌 뉴스에서의 상품 소개는 자본주의 방송의 객관주의 고수 원리에도 대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라디오 방송의 상업적 실체는 SES TV(채널6)에도 그대로 환형될 것이다. SES가 제출한 TV 개국편성은 상업방송의 폐해에 대한 그동안의 우려와 비판이 분명한 근거가 있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탈정치 프로그램의 면모
SES의 상업방송적 실체는 성인 시청대상인 오락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우선 2개의 일일연속을 제외한 전 드라마의 제목을 '○○극장'으로 통일하여 기존 드라마

저가는 분배구조의 모순이 SBS뉴스에서는 외면되거나 회색거리에 가려진 골치아픈 사건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보인다. 업선했다는 의화들 역시 기존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시시하거나 그랜디로 살만한 일상생활의 면모를 포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유있고 발달하고 유행하며 감각, 개성적인 중산층의 삶의 문화는 본질적으로 체제안주적이며 역사적 발전지성의 강화와 동시 관계를 이룬다.

SES TV의 상업적 탈정치 성향 프로그램은 정권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 노골적인 이용방송보다 물질만능의 자본주의적 방송은 더욱 독소적 요소를 수 밖에 없다.

김 현 식
(중앙대 대학원 박사과정·신문학)

◇농산물 수입개방과 우리의 대응

국산 농산물 애용만이 민족의 살길

요즘 우리 농민들은 물론 온 국민의 관심사가 외국산 쌀, 특히 미국산 쌀수입이 결국은 개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심을 시원하게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에 빠져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겉으로 보기에선 일관되게 쌀 수입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개방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 특히 농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액면 그대로 믿으려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아무리 정부가 강요해서 발표하더라도 이해 당사자들이 심사리 미지 않는 난제중에 난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도 결국은 UR에 따른 관건적 수입개방 압력이 점차 우리의 피부에 와 닿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미 우리 주위에서 하나의 개방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통해 결코 숨겨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전혀 방법은 없는가? 아니다. 분명히 방법은 있다. 실사통상압력이다. UR이다. 무역적자다. 동등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여 개방하더라도 안사먹으면 그만이다.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전 일본수상이 통상압력에 못건드 스스로 거금을 지니고 카메라 렌즈의 후레쉬를 받으며 외국산품을 사 쓰라고 국민들에게 시범을 보여도 똑 똑하고 영악한 일본 국민들은 오히려 더 안사고 국산품만을 고집하지 않았는가? 그랬던가. 동경의 최고가 값이 오르는 동경의 모든 주부들이 일제히 최고가 불매운동을 벌여 결국 언자들이 무조건 항복한 것은 물론 오히려 값을 내리게 되었던 사례를 우리 국민 모두가 간과해서는 안될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모두 개방하라! 그래도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사먹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해답이다. 우리정부는 우리국민의 수준을 믿고 과감히 개방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개방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무력으로 강점하여 모든 정책과 종교, 언어, 주택, 의복, 생활관습까지 강그리 무력으로 개조할 수는 있어도 식생활만큼은 바꿀 수 없었다.

실제로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 36년 동안 경험하지 않았는가? 일본이 내선일체(內鮮一體)를 부르짖으며 우리 민족의 모든 제도와 종교와 관습 그리고 언어까지 말살하고 창씨개명(創氏改名)을 하였던 우리의 식생활만은 바뀌놓을 수 없었다.

그래서 신토불이(身土不二)라고 한다. 즉 몸과 혼은 하나요. 제 아무리 수입식품이 좋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지닌 생물이란 그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먹이는 역시 그 생물이 살고있는 기후풍토에서 생산되는 먹이가 가장 좋은 먹이가 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결코 감잎을 먹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이다.

수입 쌀이 아무리 좋더라도 우리에겐 맞을 수는 없는 것이다. 범람하는 수입식품, 그것은 그들의 먹이지지 결코 우리의 먹이지지 않을 수 없다.

쌀 자급도 105%, 10년 동안 풍년으로 쌀을 보관하는데만 일년에 5천억 원이 소요되고 일년 동안에 취해, 해충, 보관 잘못과 자연감소로 손실되는 양이 무려 대진시대의 일년치 양식이 된다는데 이르고도 쌀을 수입한다면 말이 되겠는가?

노 안 섭
(식물공학과 교수)

무역학과 학술심포지엄 초록

'한국무역의 현황과 국제수지개선에 대한 무역학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이 주·야 무역학과 학술부처로 지난 6일 동국대(L101)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의 특이할 점은 기존의 서울 캠퍼스 무역학과 주·야 연합심포지엄에 경주 캠퍼스 무역학과 학생들을 초청해 논문발표의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즉 이 행사의 가장 큰 의미는 서울과 경주간의 교류확대를 통한 '민족 동국대화'라는 상호 소속감 고취의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날 심포의 주요내용을 요약해 본다.

성 재고와 금융산업의 기술개발부족, 경영의 효율화,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정책당국과 금융기관 당사자들 모두가 개방화·국제화의 조류에 신속적으로 적응 대응하여 외국금융기관에 국내금융기관이 종속되지 않도록 재질개선과 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한 이병인(경주무역2) 학생은 최근 심각한 대우되는 중국과의 무역 역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기업의 중국적 접두자 전략에 대한 고찰"에서 해외직접투자자의 정의와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지역별, 업종

한국경제의 위기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 신기술 개발로 경쟁력 회복해야

첫번째로 김정복(경주 무역3) 학생은 '금융시장 개방과 한국금융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대응전략'이란 논문에서 개방화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로는 △자본시장에서 외화부족 현상의 개선, 한국중시의 질적인 고도화의 계기 등으로 보았고 △금융산업연계에서는 금융기능의 증대, 민간주도형 금융체제로 전환, 고도의 입장에서 선별의 폭이 넓어질등을 꼽았다.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단기 기성 투자자본(HOT MONEY)으로 인한 국내중시의 교란 가능성 △국 투자자본의 증대, 민간주도형 금융체제로 전환, 고도의 입장에서 선별의 폭이 넓어질등을 꼽았다.

수출부문을 살펴보면 대외적으로는 미국-중남미, 일본-아เซียน의 지역분업에 따른 일부제품 수출부진, 후발 개도국들의 저가시장 잠식과 원화절상등이 있고 대내적으로는 국내 파수용량으로 수출역의 잠식, 중화학공업과 경영업의 불균형적 성장정책, 중소기업의 자금·인력난을 수출부진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기적

로 정부에서는 물가안정대책의 수립과 함께 금융실명제, 트리기금 등 경제개혁의 단행해야 하며, 기업에서는 가격경쟁력유지가 아닌 품질경쟁력추진으로의 전환과 건전한 기업가 정신의 확립이 필요하고 소비부진의 건전화와 국민적 의식의 전환등이 제시됐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들을 종합해 보면, 현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부동산투자의제, 물가안정 등의 국내경제기반의 안정속에 지속적인 기술개발투자를 통한 신기술 개발에 의한 가격-품질 양측면의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국경제는 지난날에 누렸던 호자의 시대로 다시 접어들 수 있고, 건설한 경제성장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 위기의 해결책으로

꿈을 펴는 젊음, 미래를 경영하는 3星

열린 가슴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젊은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에서 시작하여 이룩한 한강의 기적 - 우리가 달려온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허리띠를 늦추어도 될 때는 아닙니다. 이제까지 일등의 자리를 놓쳐 본적이 없는 선진국들이 뒤고 있으며 21세기까지 남은 시간도 10년 남짓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꿈없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국가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해 선진국과의 격차를 더욱 좁혀 나가는 일 - 그것이 21세기를 바라보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삼성은 세계가 앞잡아 보고 나라 전체가 우려하는 가운데서도 반도체를 개발하고 세계 두번째로 슈퍼 VHS를 만들었으며 8mm 캠코더용 렌즈를 개발함으로써 우리의 내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동안 이룩한 작은 성과에 만족하며 젊은 우물속에 안주하려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젊은이는 작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는 패기가 찬 젊은이, 땅에 짚은 얼굴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젊은이, 열린 가슴으로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젊은이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의 21세기를 열어가길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선거 '환상' 탈피, 역량에 맞는 요구로 대중과 함께해야

권력재편기가 바로 4~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정권이 바뀌게 되는 형태의 하나로 '선거'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적어도 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민주국가이므로 '권력재편기'란 말이 사람들의 입에 그토록 오르내렸던 것이다.

미국과 노정권을 한 편으로 하여, 하고 민주세력을 한 편으로 역사의 피보와 진보의 길목에 서 있는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예측하고 준비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총선거에 대한 각 주체별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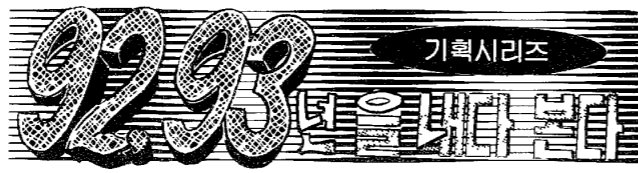
미국·노정권의 장기집권 구도
대다수 민중들의 행보와 권리를 억누르고 등국한 정치세력은 집권이 실패한 뒤의 후안무치로 스스로는 절대 권력을 내놓으려 하지 않게 된다.

이것은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으로서 지금의 6공화국은 내각제를 통해 장기집권의 꿈을 펼치려 하는 듯 보인다.

즉 친미보수연합의 성격을 띤 보수연합을 완성해 내고 난후 내각제를 실현하려는 것인데 지난 90년 1월 22일 3당연합인 민자당을 탄생시켜 내각제의 기초전제가 되는 부분적인 친미보수연합을 이룬바 있다. 그렇다면 왜 전면적인 친미연합을 결성하려 하는가.

그것은 5년마다 한번씩 치르는 대통령선거 때문이다.
선거는 권력전부를 한꺼번에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따르기때문에 그들로서는 지극히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형태로 보수연합을 포함한 집권세력 내에서 권력의 분점을 쉽게하는 이원집정부(내각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아연통합을 이룬 보수연합
김영삼, 김중철씨가 대다수의 의원을 끌고 권력야욕을 채우고자 야당으로 들어간지 2년여동안 분열



2) 총선과 선거전략

과 혼란을 거듭하던 야당이 마침내 통합을 이루어냈다. 많은 국민들이 바라던 바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따가운 눈초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야권통합은 반노·반민자당의식이 팽배한 국민의 의식정도를 감지하고 타당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점은 첫째, 전면적 친미연합의 가능성을 점치고 계획에 세워진 미·노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만들었고 둘째, 그동안 국민들의 정치허무주의와 무기력증을 일정 극복하게 한 점을 들 수 있다.



민족민주운동진영의 대응과 방향

현재 민족운동진영에서는 전국가층 대중조직이 거의 결집한 상설연합체인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이하 전국연합)을 결성하려 하고 있다.

그러면 상설연합체는 왜 결성했는가.

그것은 첫째, 5·6월 투쟁을 통해 민족운동진영의 수렴가능성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보수야당과 구별되는 정치적 구상을 확고히 구축함으로써 강력한 추동력을 형성하는데 있고 둘째, 5·6월투쟁에서 대중의 정치적 진출에 뒤따라가지 못

을 모아내면서 반노, 반민자당의식을 정치적 진출로 표출해야 한다. 여하한 정치적 자유도 허용되지 않는 식민주의 상황속에서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하려는 것은 환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선거에서 민중의 독자적 후보를 내오기는 대단히 어렵게 보여진다. 그러나 "우리의 후보가 없으니 우리의 후보를 내세우자" 등의 선거전술은 현실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없으며 오히려 고립화될 수가 있다. 따라서 민족운동진영은 유세공간활용, 집회, 선전전을 통해 반민자당투쟁에 적극 나서야 하며 대중의 요구에 맞는 행위목표·야당보다 진보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있지만 대중들과 유리된 급진적 목표제시는 신중해야 한다—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상연체를 중심으로 기층대중조직을 강화하고 선거운동을 보충적으로 하여 반노·반민자당 투쟁, 연합공천노력, 야당의 진보적 민주세력의 토대강화로 민족운동진영과의 조직적 결합의 강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총선결과에 따른 정치전망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총선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

만약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 즉 야권이 패한다면 민주당은 야당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구 민주당파는 대단히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김대중씨가 이끄는 민주당은 지역적으로 전라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김대중씨외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은 민중의 정

◇ 민언협 주최 언론학교 지상풍계



민중언론운동협의회 주최 '제1기 언론학교'가 지난 6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총정로 한국여성민우회관에서 열린다.

언론인, 대학교수등 사회 각계인사의 강연으로 한국언론의 문제와 나아가갈 길을 모색하는 이번 언론학교는 학생·시민 1백여명이 참가해 언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지난 6일 있었던 정경우(중앙대강사·언론학)씨의 '자본과 언론의 유착-광고의 정치경제학' 강연과 김중배(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씨의 '언론자유와 개혁과 함께-언론기업이 사회추구와 공익성' 특강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광고 신문사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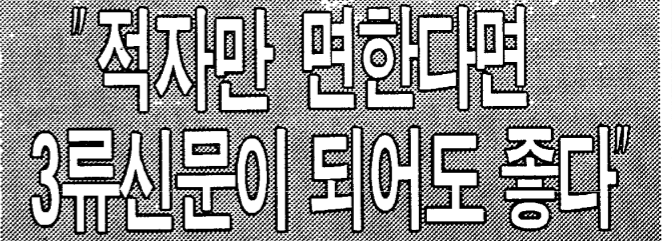
독점자본이 언론을 통해-장악하

확대, 측면이 아닌 비상업적 운영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상업적 운영은 필연적으로 광고주의 손에 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중의 각성이 모래알이어선 안 된다

여기 여섯개의 기사는 한국언론의 병리가 권력이 아닌 언론자본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60년대 공화당 유세에 청중을 실어나르던 트럭의 교통사고 기사나 70년대 박정희정권의 비상사태선포와 학생시위 기사에 정권의 가위질은 분명했다. 그러나 80년대 권인숙씨 부천성고문란면 '성고문의 고발장'이란 제하의 칼럼이나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관련 칼럼의 경우 정권은 속살만 날릴뿐 어떤 손놀림도



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독점이 언론사를 소유하는 형태와 광고를 매개로 불특정 대를 제정하는 것으로 나뉜다.

광고는 언론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제공했지만 언론매체의 광고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언론매체는 정치권력보다 더 원천적이고 철저한 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기업은 주요 광고주의 비위를 맞춰 기사를 왜곡·축소하거나 특정기업 상품을 확대보도하는 편집행태를 보이며 광고를 주지 않는 대기업에 대한 보복성기사도 서슴치 않는다. 88년 파스퇴르우유 광고시비 논란이나 경향신문의 롯데백화점 폭로기사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신문 경영의 70~80%를 광고수입에 의존하는 제도언론은 광고주가 요구하는 독자층(구매력)을 지닌 중산층(이상)확보를 위해 스포 수성향 사시·소비성향 스포시·오락적 내용 기사를 다룸으로써 더 많은 광고비를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 '백화점소식', '영화평'기사 형식의 출현도 광고주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신문사 자체의 편집방향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본주의내에서 이러한 언론-자본의 유착관계가 더욱 강화된다고 할때 '한겨레신문'등의 참언론매체의 경영방식은 발행부수

진내오지는 않았다.
또 양당일부 발행인의 "적자를 면한다면 3류신문이 되어도 좋다"는 발언은 이미 각 일간지의 경영 방침이다.

이런 마당에 언론자유에 한계를 두는 것은 거의 부질없어 보인다. AP통신사의 상무였던 켈트 쿠퍼는 "알려지는 인쇄자의 이기적인 권리가 아니라 인민의 권리를 의미한다"고 했다. 이렇게 본다면 언론자유에 한계지정을 정보제공을 위한 '자기검열(스스로 기는 언론기자의 태도)'에서의 탈피가 보다 우선적인 과제다.

민중언론운동을 모색하며 최근 언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고무되면서 감히 그 네트워크의 형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한겨레신문, 말, 사회평론등의 대항언론이 있지만 이의 양상은 대중의 각성위에서만 가능하다.

민중언론을 철학하며 방관하는 언론노동자 집단은 결코 바른 언론의 지평을 열 수 없다.
이처럼 기자·독자의 각성과 감시 없이는 권력과 언론자본을 떠난 언론자유는 우리 손에 쥐어질 수 없다.

이처럼 기자·독자의 각성과 감시 없이는 권력과 언론자본을 떠난 언론자유는 우리 손에 쥐어질 수 없다.

이처럼 기자·독자의 각성과 감시 없이는 권력과 언론자본을 떠난 언론자유는 우리 손에 쥐어질 수 없다.

총선, 대중투쟁을 창출하는가의 기로 민자당은 내각제로 안정적 권력분점 노릴듯

하는 낮은정치·조직적 통일성을 더욱 드높이는 데 있다. 세계, 전민련과 국민연합을 중심으로 한계되어온 친선운동은 극복하고 권력재편기에 급격히 반출한 부쟁의 열기를 정치적으로 집중시켜냄으로써 대중의 정치적 진출과 투쟁력을 고양시켜 내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세속에서 전국연합은 무엇을 얻어내야 하는가. 추상적으로 말해 민족운동진영은 총선까지의 시기 속에서 국민적 지지율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켜나간다는 것이다. 즉 의회는 야당이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범국민적으로 상연체의 위상과 힘을 대중층에 넓혀나가고 야권에게는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대통령선거를 지를 수 없다는 인식을 하도록 하여 그들의 발목을 붙잡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즉 조직적 토대 구축이라 할 것이다.

지배세력은 공인단체를 강화하여 민중들의 투쟁을 와해시키려 할 것이다. 이에 전국연합은 각계급·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대중투쟁

적극 임지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반대로 민주당이 압승을 하거나 예정된 의석수만 확보하더라도 민주당은 대통령선거를 향해 걸출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87년 대통령 선거이후 다시한번 권력재편이 전국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사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하더라도 대통령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갈등이 표출될 것이고 그 속에서 미국과 노정권은 또 분열을 노려 그 이익을 챙기려 할 것이다. 따라서 총선은 그 결과 여하에 따라 대중투쟁을 힘차게 열어야 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대통령선거)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투쟁의 열기를 지역과 지방으로 분산시켜 공간의 고립화(비국제)를 초래하느냐의 중요한 기로인 것이다.

이제 전국연합은 각계급·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대중투쟁

이제 전국연합은 각계급·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대중투쟁

이제 전국연합은 각계급·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대중투쟁

이제 전국연합은 각계급·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대중투쟁

동막로

"학우들의 문제제기와 감정을 향상적으로 받으므로 대학강의가 올바른 관점에서 발전적이며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게끔 하는 데 강의의 평가의 중요성이 더해지는 것임이다"

지난 16일 학원관 사범대학도서관에서는 전국적 강의평가 실시를 위한 서울지역추진위원회 서울지역교육과정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이날 주제교양은 올바른 강의평가에 대해 관심이 있는 50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강의평가란 무엇인가, 설문지작성의 의미, 어떻게 실시할까, 자료집 활용법 등 다양하게 진행됐다.

본교 중앙교육과정위원회 위원장 장정현(교육3)군은 "절국 그동안 교수·학생의 강의개선에 대한 대화단절로 인한 수업실수를 극복

하고 강의의 질적발전을 추구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라고 말 하면서 "이번 강의평가는 기존교수자에 한정시킨 평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 현재 본교의 경우 배종근교수(교육학과), 김태준교수(국문과)를 비롯해 7명이 강의평가를 실시했고, 오는 31일까지 20여명의 교수가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학문사상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열망으로 진행된 이날 주제교양은 교수만이 강의의 주체가 아니라 학생도 일정한 능동적인 주제로 서야함을 논할 수 있게 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요즘 선거, 강의평가 등 중요한 학생회사업에 대해 무관심으로 임하려는 많은 학생들의 모습은 올바른 강의평가를 위해 노력하는 주제들을 부끄럽게만 한다.

최선봉에 우뚝 섰던 88년 학원 자주화투쟁의 열기는 중요한 이 시점에서 점점 사그러져만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한창 진행중인 강의평가에 능동적인 참여로 부활한 것인가.

(이경애기자)

기로

이제 전국연합은 각계급·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대중투쟁

이제 전국연합은 각계급·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대중투쟁

이제 전국연합은 각계급·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대중투쟁

이제 전국연합은 각계급·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대중투쟁

이제 전국연합은 각계급·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대중투쟁

이제 전국연합은 각계급·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대중투쟁

이제 전국연합은 각계급·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대중투쟁

방학특강

외국어특강
개강 12월 2일

독해
Korea Herald사설, Time, Digest

회화
Practical English, Side by Side American Stream-Line
말뭉치생활영어, 미국인 회화

영작, 어휘력, 실용영어
기본영작문연구, Vocabulary 22,000
Movie English TOEFL L/C 및 미국어 Hearing, AFKN

TOEFL
아카데미 TOEFL TOEFL, L/C

종합영어(입문~고급)
미국식교과서영어→기초영어완성→영어실력기초→성문기분영어→성문종합영어

동시통역대학원
외대동시통역대학원 입학에 위한 1일 4시간 집중코스

입어
일본인회화/박성원(입문→고급) SCREEN 회화, NHK 필름/동경일본어/비즈니스영어

관광영어 종합반
영어과, 일어과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인구역 열 757-0419

코리아헤럴드 외국어원

SLE

INTENSIVE ENGLISH CONVERSATION PROGRAM

- Placement Test를 거친 Level별 학급편성
- 동일 Level로 구성된 12명 정원제
- 양질의 학과
- TESL (영어교육학)을 전공한 성실한 미국인 강사진담당
- 수업료 20일

Placement Test - 20일부터 주중 1-3, 토 1-4시까지

PAGODA LANGUAGE SCHOOL
종로 2가 파고다문화센터 274-4000
강남 임구정길 동동대교 515-4020

SINCE 1961

개원 30주년

시사영어학원
SISA ENGLISH INSTITUTE
종로2가 종각역 TEL: 734-2442

영어·일어·독어·노어

아카데미 TOEFL	미국어 HEARING	일어문법·독해
로 알 TOEFL	성문종합영어	(초·중·고급)
이 재 독 TOEFL	성문기본영어	일 어 회 화
TOEFL GRAMMAR	TIME·영작문	일본어회화
VOCAB 22000	영 어 회 화	러시아어
영 어 회 화	(초·중·고급)	독 일 어
TOEFL L-C	미국인회화	(초·중·고급)
TOEFL 600	GRE 2000	GMAT 700
M-A English		

英·日·中·露·獨·佛語

고려외국어학원

외국어교육의 센터

BE WINNERS

대표전화 739-8000, 7000, 6000
종로 YMCA 건너편 양우당서적코너 빌딩

낮은 열효율에 비해 엄청난 핵폐기물

◇핵발전소 꼭 필요한가

핵폐기물처리장 부지와 관련하여 국민들은 꼭 속 시원한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있다.

먼저 정부는 무엇보다도 기를 쓰고 핵폐기물처리장 부지를 구하려고 하는가? 또 해당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왜 반대를 하는가? 과연 정부의 말대로 핵폐기물이 안전하고 핵발전소를 계속 지어야만 하는가? 그렇다면 민간 환경단체들은 과연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무식한 집단의인가?

정부가 핵발전소를 계속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이차 피폐화되는 핵폐기물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처럼 위험천만한 쓰레기를 계속 내뿜는 핵발전소 건설, 기동계획부터 먼저 취소하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미 저절로 놓은 과오를 슬쩍 시인하는 데서부터 풀릴 것이다.

정부의 핵우호론자들은 핵발전소 없이도 해결가능한 전력수급문제를 구태여 핵에만 의존하려고 한다. 위험하고 비싸며 실제 관리의 원천적 기술도 모두 외국에 의존하며 영구적으로 처리 불가능한 폐기물을 남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반대까지 구해가며 핵발전소 부지를 차지하기 위한 핵발전소를 계속 지으려는 목적을 알 수 있고 다만 그 숨은 내막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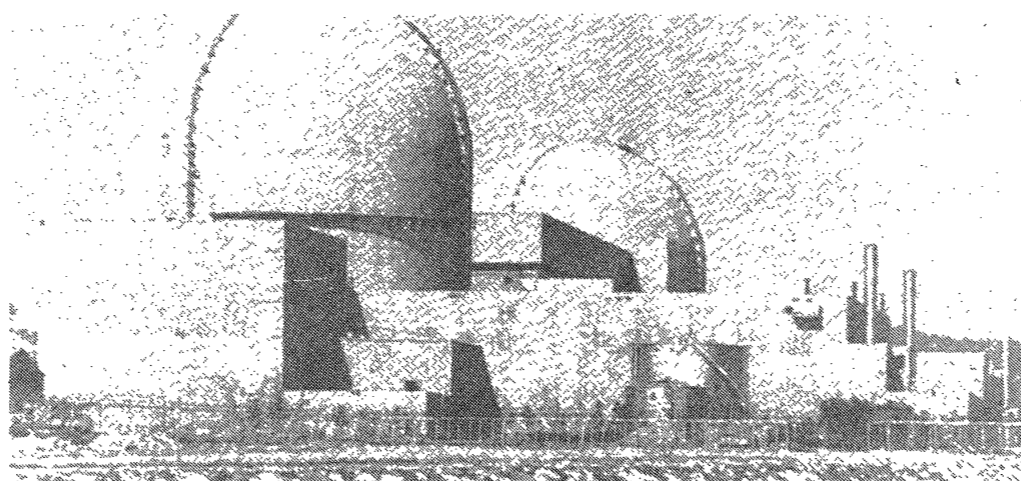
왜 핵발전소를 버려야 하는가?

첫째 핵발전소는 위험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미국, 프랑스, 일본,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핵발전소의 사고를 비롯, 무수히 많은 사고를 보아왔다. 인간 기술의 현재 수준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

참핵론자들은 대형 사고발생확률이 적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일단 사고가 나면 그 피해가 우리 사회, 민족, 나아가 인류사회의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처리장’부지 없는 3만 드림의 핵폐기물 무분별한 핵발전보다 새로운 전력수급 강구해야

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대형사고가 아니라도 핵발전소가 일상적으로 방사능물질을 만들고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점이다. 둘째 핵발전소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89년 전기연감을 근거로 계산해보면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 Kwh당 11원50전, 핵발전소는 13원 40전(30년 평균)이 든다. 이 액수는 2기당 거의 5조원에 달하는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ICRP)의 피폭규제치에 따르면 핵전도종자들은 일반인보다 방사능에 50배나 강해야 핵발전소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 (사진은 고려원자력 발전소 모습)

건설비용과 맞먹는 해체비용, 폐기물 처리·보관비용 등을 제외한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핵전력의 약 3배 가량 비싼 전기를 만들고 결국 국민들은 앞으로 핵발전소 때문에 더 비싼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핵전의 경제성을 앞장서 외치는 '프랑스 전기'는 88년만도 3억달러, 총 380억 달러의 누적적자를 안고 있다. (한겨레신문 89.2.25)

셋째 핵전력 수요자들이 자주 들먹이는 논리 가운데 핵전력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는 가설은 주장이 있다. 독일 연방의회 소속 대기권보호조사위원회는 1천쪽 분량의 조사보고서에서 원전의 확대보다는 기존 화력발전소의 기술개발에 힘을 쏟는 편이 탄산가스 배출을 더욱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겨레신문 90.10.26) 일반적으로 원전은 약30%, 열병합화력발전소는 70%이상의 열효율을 보인다. 넷째 핵발전소의 수명은 30년으로 이 기간 쓰노자 700억 원 이상을 지키다가 일일이 부수어 드림통에

포장, 깊은 땅속에 파묻고 수십만 년간 관리해야 한다. 도대체 후손에게 못할 것이다. 그밖에 우리의 대안이 핵발전소가 아니어야 하는 근거는 얼마든지 있다.

국내 핵발전소는 안전한가?

우리나라에 가동중인 9기 핵전은 전체 시설용량의 36%이고 지난해 총전력의 50%를 발전했다. 한전이 내세우는 이 '비중'은 핵발전소의 출력조절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기술적 특성과 더불어 경제성 시비를 다스리다 벗어날려고 노력의 소산이다.

다음 표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방사능 연간 피폭규제치를 대비한 것이다.

ICRP	한국	영국	ICRP*1/10
직업인	5	5	1.5
일반인	0.1	0.5	1.05
			0.01

이 표는 핵발전소에 대한 한국의 넉넉한 인심을 보여준다. ICRP(국제 방사선 방호위원회, 핵산업계의 어용기관으로 알려져 있음)의 수치를 보면 핵전도종자들이 일반인보다 방사능에 50배나 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피폭량을 더 이상 낮추면 핵산업이 당장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핵전에 고용된 일용노동자들이 피폭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규제치를 최소한 10배 이상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수치를 지키자면 우리의 채광, 정련부터 폐기물 처리까지의 전 과정이 멈출 수밖에 없다.

핵폐기물이란 무엇인가?

먼저 핵폐기물의 근원부터 살펴 보자. '깨끗한 에너지 원자력'은 출발부터 방사성 폐기물을 대량생산한다. 핵전 1기의 1년분 핵연료 31톤은 우리가 평생 10만명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폐광석 수십만톤과

정련과정, 농축, 성형 등 단계마다 빠짐없이 핵폐기물을 낳는다. 또 100만Kw발전소 1기는 연간 히로시마 원폭의 1천배 분에 해당되며 전 인류가 암에 걸리게 할 수 있는 양의 방사능 물질을 만든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만도 히로시마 원폭 8천개 분의 방사능물질이 생겨났다. 즉 핵전 1기만 사고를 일으키더라도 해당지역은 물론 전국각처, 민족적인 재앙을 당하게 된다. 그밖에 노동자 피폭, 핵발전소 주변에서 기형아발생 등이 점차 늘고 있다.

둘째 핵폐기물의 독성은 어느 정도일까? 한 가정의 1년분 소비전력을 만드는 핵연료가 타고 나면 이 속에는 약 50~60조 배르렐, 즉 약 5만명의 발암치사량에 해당하는 핵물질이 생긴다. 그야말로 인류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생명파괴술이라 할 수 있다.

소위 '저준위' 핵폐기물이란 용어가 있다. 이는 핵연료에 비해 '저준위'라는 말까지 결코 방사능이 약해서 '저준위'가 아니다. 노란 드림통 한 칸에 담긴 방사능 총량은 500억명의 1년분 피폭한도의 합과 같다. (일본 허용농도 1큐리/㎖ 기준) 이런 '저준위' 핵폐기물이 우리나라에 이미 3만드림이나 쌓여 서 영구분쟁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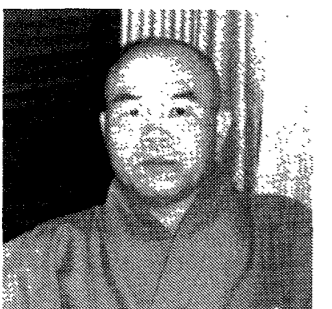
드림통, 체코슬로바키아 사고는 인간의 도덕적, 기술적 한계를 드러낸 문명사적 경고로 받아들여져야 한 것이다. 이 수치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세계 최대규모의 핵발전소건설계획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때 해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핵폐기물처리장 부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김 중 환

(한국 반핵반공해 평화연구소 연구원)

◇하와이 대원사 기대원 스님을 만나

본교 불교문화연구원(원장=채인환·선학)과 대한불교조계종 하와이 대원사(주지=기대원)가 함께 마련한 '평화'를 위한 지도자와 불교의 역할'에 관한 제5차 국제학술회의가 지난 18일 개막됐다.



이번 학술회의는 14개나라의 정치인, 학자, 승려, 문인들이 참가하는 21일까지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국제적 교류를 모색했다. 동서문화의 접점지인 하와이에서 대원사를 세워 한국불교의 세계적 전파를 시도하고 있는 기대원스님은 이번 학술회의를 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남북 불교교류와 통일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북한을 여러 번 다녀 오기도 한 대원스님은 지난18일 학술회의장인 세라트워커 호텔에서 만나 스님이 바라보는 한국불교의 현재와 미래상에 대해

국내외 지식인계에 불교의 새로운 인식 계기

사회변화에 적응 못하는 한국불교 제모습 찾아야

기회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3월 그것이 무산돼 서울개회를 준비하며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북한을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이 준비되었는데도 시도했지만 무산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3박4일간 세계14개국 불교관련 학자, 승려가 참석,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불교 역할과 기능을 모색하며 부처님 가르침의 사회기여에 대해서도 의견

이 오십니다. 시간이 된다면 동국대학교 방문해 볼 생각입니다. -국제적인 불교교류에 하와이 대원사가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와이는 동서문화접점지로 한국사람들이 미국에 첫발을 내딛은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75년 하와이에 건너다 대원사를 세우고 한국 불교의 국제화를 강구하며 83년부터 시작, 이번 5차학술회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태평양 불교회의와 같은 국제적 불교기구를 만들 계획도 추진중입니다. -남북불교교류에 큰 중개역할을

회영향을 주는 것이 지식인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작은 자리중의 하나라 하겠지요. -한 한국불교의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는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교육이 진행돼야 하고 가장 진실하고 순수한 수행승으로서 모습을 찾는 데 지금 한 과제라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불교대학으로 동국대학교를 어떻게 보는지...
▲불교대학으로 민족대학인 동대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육성법 문제점

친여 관변단체에 자금지원 의혹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육성법'이 지난 6일 민자당 당무회의에서 통과돼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될 예정이다. 이같은 각계에서는 '92-93년 선거에서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정치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 법안은 △국·공유 시설물 무상 사용 △소초제강민 △국·지방단체의 출연금부담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데 89년 4월 발족한 '바르게 살기운동중앙협의회'(이하 바살협)가 법안은 '바르게 살기운동' 캠페인 등 모든 활동에 법적 근거를 명시, 자금·시설물 지원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민자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회각계는 "현재 경제정책, 추곡수매, 노동법개정 등 일련의 정부정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 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변화가 필요함이다. 교육·학생·학교당국·종단이 이해와 힘을 모아야 겠지요. 그렇게 하면 머지않아 세계적인 불교대학으로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낙관합니다. (남철우 기자)

생활운동,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등의 관변단체 예산을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물론 민주당의 이같은 요구는 이들의 관변단체가 법안의 각종 캠페인 지원에서 법안에 불리한 것이라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육성법안과 비슷한 내용을 가졌던 새마을운동육성법(80년 12월13일), 사회정화위원회육성법(83년 5월21일)에 의해 합법적인 지원을 받았

'민간단체육성'... 사실은 선거대책

민간단체들은 발족 당시의 설립 취지와는 달리 정부인정을 두둔하거나 '반정부 민주화세력'을 팽팽이라는 성명, 집회를 무수히 보여 왔다.

이러한 정부의 관변단체 이용은 80년 10월28일 조직된 '사회정화위원회'의 활동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발족 당시 권력형 부정축재 축출, 사회적 일소등을 설립목적으로 했던 사회정화위원회는 80년말 민간단체를 총괄하며 2년9월5

여기 위원회와 58만여명으로 조직이 확대되나 '체제옹호의 창'이란 비난의 여론이 확산되자 89년 지금의 '바살협'으로 개편된다. 또 정부의 '유단' 지원으로 현재 바살협은 전국 15개 시도 협의회와 12만여명의 회원으로 확보하고 내년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바살협에 대한 각계의 우려에 대해 '민간단체의 순수한 취지를 무시한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지만, 지난14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새정치·새생활'을 위한 민·관·군 연합대회'에서 방위병 1인당 2명 이상 동원 지시와 군복무가 가족까지 동원된 사실에서 친여 민간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한 우려는 결코 쓸데없는 시작만은 아니다.

특히 바살협이 92-93년 선거에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바살협의 전신인 사회

정화위원회가 그동안 보여왔던 활동상향 스치는데 '반정부'의 전향

신표 이후 자유연맹, 쾌락군인회, 민족통일협의회 등 친여 관변단체가 발표한 성명내용 △정부의 교묘한 민간단체활용을 중점해 보면 오히려 쉽다.

내년 선거에서 '용공세력'이 체제전복을 노린다는 레퍼카트카 거리를 배울 것이며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한 '바르게 살기운동'이 여러 민간단체의 이름으로 홍보될 것이다. (이병민 기자)

운전을 배우시다
23년 전통·성실한 교육

- ① 드라이빙 마스터에 의한 시정차 교육
- ② 타이어 무료 윤활
- ③ 대학생, 직장인단체 특별우대
- ④ 외국(이민) 출국차 특별한임
- ⑤ 실습시간 자유선택
- ⑥ 통학버스 무료 운행
- ※연속수차자 시내운전연수

*** 컴퓨터 교육시설 완비 ***

學校法人 新進學園
新進자동차학원

개강: 매주요일
수시접수 (야간·휴일도 접수함)

永登浦學院	영등포 양평동 경인고속도로입구	0036~7 (633) 3962 3963
西部學院	은평구 양양동 신진공고 앞	(356) 2341~3
北部學院	도봉구 번동 북부경찰서 뒤	(994) 2861~5

컴퓨터
본원은 국내 최초의 정보처리 전문 교육기관임

개원 24주년 개강: 매월초

- 프로그래밍과제
- 기사자격취득과정
- OA 초급과정 (XT)
- 대학생방학특강
- OA 고급과정 (AT)
- 여성 OA 취업과정
- C언어, UNIX 과정
- 매주 토요일 학습

정보처리요원취업, 정통 사회교육기관/
● 취업 및 교육의뢰기관에서 실시됩니다. ● 행정 정년직

대형컴퓨터 2Sets 설치실습
(IBM OS F/4000 및 MV/1500S-8)

OA 고급: 40MB HDD AT 1인 1대실습

정보처리기사 1, 2급 방학특강
● 출제유형 및 각대학 전산학과 교수진 핵심지도
● 1급: 1월6일~1월31일, 2급: 2월3일~2월28일

백문불어일건 내방전형상담형/

- 본원은 교육회과의 국제화 감안, 본원설 입니다.
- 본원은 종전 대한컴퓨터학원이 보다 실질적인 정보처리전문 기술요원 양성기관으로 정부의 인가를 받아 대한정보처리학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치: 파고다공원건너편 종로2가네거리 (동화점 빌딩)
상담: 274-6911~5 (휴일도 접수)

대한정보처리학원

독일은 학비와 비자신청비가 없으며 세계에서 한국 유학생이 두 배 이상인 유망국의 요격지
당신도 이번 국내비자를 청도노 소가게 독일유학함.

학비가 없는 종합대학, 유대·미대·제대
유학 정보소스 전문

독일어
오스트리아·스위스·이탈리아·스페인

방학연수
어학 음악 기타
설명회: 12월 7일 오후 4시 인평구아분교
매일초개강 inlingua
독일어
어학증명서 독일대학에서 인정
회화 문법·독해
독자·PNdS

유학생 항공요금안내
세계적 인력의 외국어학교
(중·고·대학·대학원·대학원)
이태리어회화
유학생 항공요금안내
세종로 관철동 19-19
(충로서적 뒤 세번째 골목)
이태리어회화
☎ 733-3804, 735-7923

컴퓨터
통학권 발급, 휴일도 접수함.
개강: 매월 첫째 월요일

22년의 전통
높은 취업률
풍부한 실습시설
국내 최대의 전산학원

프로그램 정유과정
● 프로그래밍 정유과정 (7개월)
● 프로그래밍 속성과정 (4개월)
● 미이팅 (386DX) 정유과정
● 여성 OA 정유과정
● AUTO CAD 정유과정
● C-언어 정유과정
● 정보처리기사 대비반
● 특설과정: ● UNIX ● 자바구조 통계 ● 컴퓨터 그래픽

과목별 선택수강 가능
컴퓨터 총론, FORTRAN-1, COBOL-1, FORTRAN-2, COBOL-2, PASCAL, ASSEMBLY, MS-DOS, CLIPPER, DATA BASE, WORD PROCESSOR, LOTUS 1. 2. 3, SYMPHONY, UNIX, QUATTRO, C-LANGUAGE, AUTO CAD-1. 2, 자료구조 통계

서 초 23호선 교대역
의원동역 건너편
☎ 521-1761~5
☎ 631-1921~5

종로 단상서점 빌딩쪽
(중앙빌딩)
☎ 766-1811~5
☎ 313-1711~5

부 신: 부산역(중앙안산선빌딩) ☎ 466-1611~5
대 진: 유전동(사거리) (중앙빌딩) ☎ 522-3801~5

컴퓨터 교육의 명문 중앙전산학원
중앙정보처리학원
☎ 735~2323, 9716
종로1가 제일은행 본점 옆

군·행정·병·모집
육군·참모총장위촉처

1. 고졸이상 17~26세
2. 행정병주거부여
3. 매월 단독 입영 배치
4. 6주훈련후 상급부대 배치

※ 유사학원주의
● 사무자동화(OA) 병
● 차트(일방형정병)
● 타자사수행정병

인성학원
☎ 730-6946~7
종로1가 우곡사거리 2층

유니타자학원
☎ 735~2323, 9716
종로1가 제일은행 본점 옆

추진 준비
수성과정

1. 과정: 영어, 일어
2. 인원: 각반 10명
3. 교육기간: 12월2일~1월31일
4. 교육시간: 오전 10시~12시, 오후 4시~6시

특전
수료후 성적에 따라 취업안선

553-9015
553-9016

세계국어학원
강남역 30m → 도보 1분

국문과등 5개과 강의 평가 실시

높은 학습효과-강의 내용 향상에 기대

29일까지 10개과목 확대될듯

한 학기동안 진행된 강의의 내용, 방식등을 평가하는 '강의평가제(이하 강평)'가 지난 18일 시작돼 오는 29일까지 10여개 학과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중앙교과과정학제위원회는 18일부터 29일까지를 강의평가제 본격 실시기간으로 설정하고 교수·학생들에게 강평 홍보 작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이미 김태훈(국문학), 배종근(교육학) 교수등 일부 학과 교수들은 교과위가 작성·배부한 강평 설문지를 작성·배부한 강평 설문지를 통해 강의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교수가 1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강평 설문내용은 강의내용, 강의방식, 교수·학생태도, 시험·과제물 등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으며 학습자(학생)의 만족도를 크게 5개분항으로 나누고 있다.

중앙교과과정학제위원회장 장정원(교육3)은 "강의평가의 설문결과를 보다 높은 학습효과와 강의 발전을 모색하는데 쓰여질 것이며 학생·교수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게 바람직하다"며 "결코 부능교수 색출등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강평실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교무처장 김인제(경제학)교수는 "강의평가제의 본래 취지는 좋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되며 현재 본교 면학취미를 고려해 보면 전면적인 실시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또 사범대 야구계 교수는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학습태도를 볼때 강의평가 내용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하는 의문을 갖는다. 따라서 수업의 질적 향상과 강의의 변화·발전

을 위해 먼저 학생들의 성실한 학습태도가 요구된다"며 강평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현재 본교를 비롯한 세종대, 시립대등 서울 일부대학에서 강의평가가 조목조목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의 경우는 강의평가 내용이 수업방식, 강의내용, 교수평가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학교방편으로 한학기 종강과 함께 강의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강의개선을 위한 교수·학생 의견수렴 통로가 강의평가란



△법대학생회는 지난 14일 '공청회 겸 비상학생총회'를 열고 문제의 진상규명과 구제책 해결방안을 강구했다.

법대 공청회 성과없어 징계요청철회 - 공개사과 요구

법대 내부문제의 해결점을 모색하고자 법대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강유식)는 '법대공청회 및 비상총회'를 지난 14일 오후 1시 동국대(L301)에서 교수·학생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고 그동안의 논란이던 사안에 대해 진상을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비상대책위에서 준비한 안건과 학생들의 즉석질의에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비대위는 상정안건으로 △지난 10월10일 백모교수 연구실에서 있었던 불미스

러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순간성명의 무사자 확인에 대한 대학원위원회 보고내용의 진상 △교수님들의 불편한 판권을 인계 반대사안에 있어 조처하지 못한것에 대한 동국법학중흥을 위해 8분교수님들의 대안을 밝혀 줄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각 사안에 대한 해당 교수들의 의견진술은 요구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밤대사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이번 법대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3분 교수의 법대구성추체에 대한 공개사과와 모교수의 징계

‘불교와 실학’ 토론 불교문화사 연구회서

한국불교문화사연구회(회장=홍기삼·국문학) 학술토론회가 '불교와 실학'을 주제로 지난 16일 경기도 양평 베이스타운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근대한국 불교와 실학의 공존된 인식점을 찾아 근대 한국사에서 불교의 역할을 검증해내는데 역량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날 발표된 주제는 △강원도(강원대학교) - '한국에서의 실학연구 동향' △순창(국문과 강사) - '중국실학의 전개양상' △쌍창(국문과 강사) - '일본실학의 연구동향' 등이었다.

“학자투-정치투쟁에 주력할 터”

총학생회장 당선자 이갑집군과 함께

지난 16일 총리표 최종결과와 제24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이갑집(전기3)군을 만나 92-93년 권력재편기를 앞둔 중대한 시점에서 투쟁사업을 이끌어갈 제24대 총학의 기본적인 사업계획구상을 들어본다.

— 당선소감과 이번 총학 선거를 간략히 평가하면. =무척 기쁘다. 임무보완할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지금까지 눈코 뜰새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숨을 쉬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기호·2번 다같이 올바른 선거문화포토조성을 위해 열심히 운동해 온것 같고 유세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 사항들은 반드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 92년은 선거도 많이 있는데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구상은. =새로운 실천, 행동하는 총학생회건설로 민주정치의 세시

불교 아동학과 농성 풀어 윤교수 휴직등 5개항 합의

신규교수임용 문제가 교과과정에 반영을 요구하며 농성중인 불교 아동학과(이하 불·아과) 교수들이 13일 학교측과 문제에 합의의 함으로써 농성을 풀었다.

학교측과 합의된 내용은 △불교 아동학과(이하 불·아과)교과목은 1/3이상 불교와 관련된 과목이어야한다. △불·아과교수는 한학기당 1과목이상 불교와 관련된 과목을 강의해야 한다.

이전 불·아과 사태처럼 매년 문제가 되고있는 신규교수임용이 지난해 산업안전공학과처럼 학생교과위나 학과협의 없이 일방적인 학교의 임명만으로 계속 마찰을 빚어왔다.

한편 불교 아동학과, 석림회는 본보(1087호) 관련기사에 대해 "석림회가 이번 문제에 가담했다고 문제해결에 진전을 보았는다고도 교수간 갈등이라는 등 신문에서는 이를 왜곡, 편파 보도했다"며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학부위 동계 특강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박동우·국문4)는 오는 12월19일부터 내년 2월21일까지 8주동안 특강, 영어순례, 타자, 컴퓨터 등 동계특강을 실시한다.

학과소식

행정학과 '행정학도의 밤' 행정학과학생회는 오는 22일 오후7시 교수, 재학생, 졸업한 동문선배들과 함께 보리수(다향관2층)에서 '행정학도의 밤'을 갖는다.

무역학과 총회 무역학과학생회는 누리에 감사 보고 및 학생회장 선거를 위해 오는(20일) 오후5시 동국관(L401)에서 총회를 연다.

정보관리학과 사사회 정보관리학과 4학년생들은 오는 23일 오후5시 다향관 교수식당에서 사사회를 갖는다.

남의 잔치엔 국제회의(?)
○...“불교종립학교”를 자처하는 본교가 국제학술회의에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해 안타깝기만.
지난 18일부터 세계13개국 불교학자등이 참석해 3박4일간 불교의 국제적교류에 관한 학술회의를 여는데 하와이 대원사와 공동 주최자인 본교는 주관 역할이 단연명 뿐이고 행사진행, 경비, 북한 대표초청등 실제역역에서 본교는 이름만 빌려준 행사였다.

이제 본 회전무대자 “L.A 불교대학실업등을 의지하며 정국 국제화를 의지는 본교가 국제학술회의에서 병어리가 되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려 씁쓸합니다. 하여 공부, 공부 학생만의 얘기가 아닌듯 있습니다”

두손에 석유받기
○...“석유봉을 반환해야 나도 일을 제대로 할기 아닙니까.”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지난 11일부터 관제과에서 도서관 뒷편 목공소의 아저씨 한 분을 고용해 석유를 공급하고 있는데 모두 50여통의 석유봉이 제대로 반환되지 않고 계속 공급요청만 해 아저씨 혼자서 빈 석유봉 회수하러 기쁨공급하러 정신없이 바쁘다고.

한 학생이 석유봉도 없이 빈손으로 석유를 달라며 찾아오자 석유봉이 없는 빈창고를 가리키며 “자네 두손에라도 담어주라”하며 아저씨가 푸념하기도.

휴지자판기 교체 가동 설치장소등 이용자 편의 위주

설치장소 문제로 지난14일부터 판매가 중단됐던 한국자판기 휴지자판기 교체(20일)부터 작동되고 동시에 동국관, 도서관, 학생회관, 학원관 등에 설치돼있던 생용제지 자판기는 모두 폐기된다.

학생복지위원회는 직접 운영해오던 생용제지 자판기가 지난해부터 남은 기계의 결함으로 계속 고장을 일으키며 89년부터 함께 운영해오던 한국자판과 지난 9월19일 임주운영으로 정식계약을 체결하면서 남은 고장을 일으키던 기계를 신중으로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설치장소를 고려하지 않은 임주측의 일방적인 기계설치와 4대생실용으로 학교측의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한국자판이 직접 휴지자판기를 운영할 경우, 생활문화운동진개와 함께 이용자에게 신속성과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으나 불확약이 어려워 많은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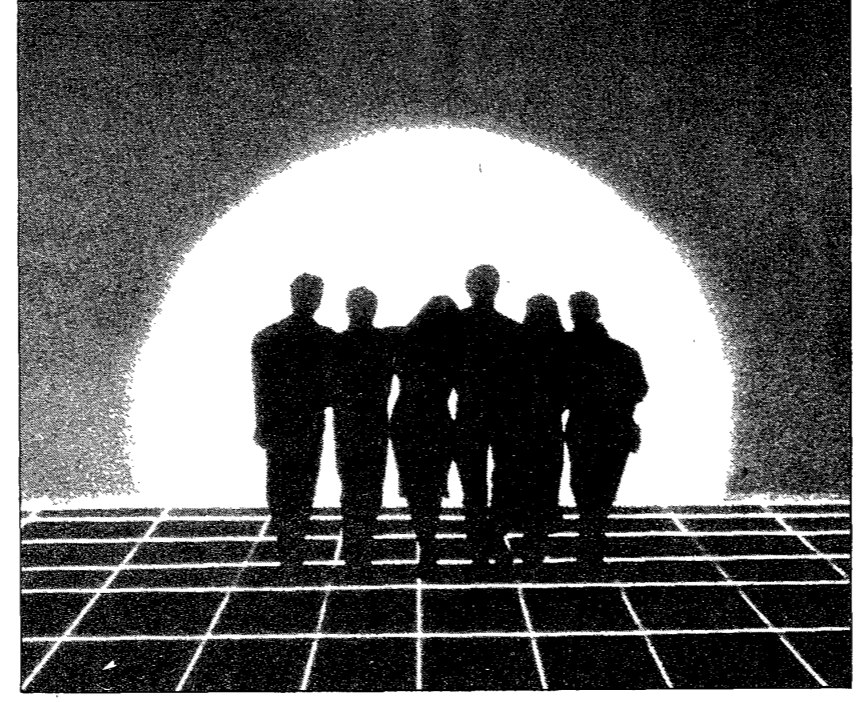
東方그룹

“2000年代 비전을 실현해가는- 東方그룹”

東方그룹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헌신하는 기업정신을 갖고 2000年代를 향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정신과 적극적인 활동, 보다 나은 합리적 경영과 새로운 기술개발, 인간존중의 정신과 가족적 정서의 만남,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의 능력이 무한한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기업.

東方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주) 동방
40년 오랜 전통에서 향방을 위한 추종정신의 응모. 설치까지 일관적운영하는 종합적인 운영체제로서 동양계에서 선두주자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국제방직 (주)
고급면사, 면용리메스타사, 중방사, 이코스타, 스텝블리, 엠스타사, 비스코스, 웨이비스 등을 생산하여 의생활 문화 창조의 기초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금속공업 (주)
화강암 원반, 스테인리스, 산별과 특수강 산별의 열처리 및 산별처리용을 통하여 소재를 생산,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해업선 (주)
항만운송 부대사업으로 화물고정선, 항만운역, 선박 관리업, 면세물품 등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 대세관광
항공권 예약, 단박여행, 앞선 외국여행 진행, 각 VISA 발급 대행업무로 많은 여행객에서 큰 주목을 얻기 되었습니다.

인성장학문화재단
1991年度 漢字證書 授與式

東方그룹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120 국제보험 BLD 23F
☎ 755-52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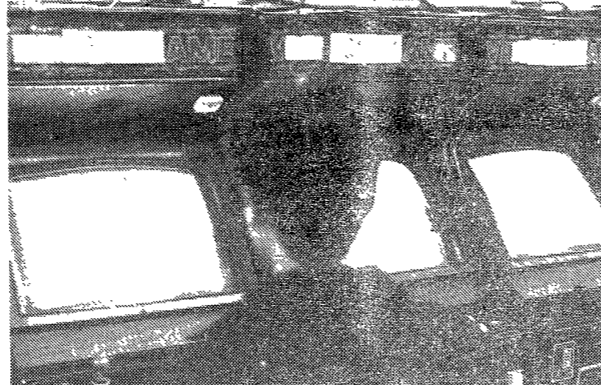
밀착취재

"청소년 오락문화... '폭력'으로 물들고 있다"

◇'폭력' 난무하는 전자오락실

"형, 스트리트 파이터2 알아? 그거 끝내주게 재있다"
 얼마전, 외삼촌 결혼식에 갔다가 잠깐 만난 국민학교 다니는 외삼촌 동생이 오락실 가지고 조르면서 했던 말이다.
 이제 알파벳이나 갖 외울 나이에 영어로 또래를 발음하며 하도 조르기에 같이 가겠다고 녀석은 결혼식장에서 친척들에게 용돈을 받은 친원짜리 몇장을 다 쓰면서 6개나 되는 스리지를 요리조리 정신없이 놀러갔다.
 동생이 뜬금없이 놀러오락하는 동안 화면에는 미국, 일본, 브라질, 인도, 중국, 소련 등에서 고른 노랑머리 체격과 미군복을 입은 인물이 비대한 체구와 징그러운 얼굴로 프로그래밍된 인도, 브라질 국적의 인물들을 차례차례 피가 터지도록 두들겨 패고 있었다.
 동생 인상이 여러 모양으로 변하는 모습이 재미있었지만 오락실을 나서면서 동생의 "태국녀석까지 조르리 죽일수 있었는데"하며 아쉬워하는 말이 가슴이 뜨끔했다.
 이처럼 현재 전자오락실은 미국, 일본 등지에서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는 폭력성 오락물이 판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본교 부근 오락실

등도 예외는 아니다.
 인근 국민학교 교외시간만 되면 정신없이 오락기를 잡고 흔드는 아이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또 대학생들도 이런 현상에 적극(?) 동참, D오락실의 경우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동안 1백여명의 학생들이 계속 출입했고 복하나 대학생들은 몇천원씩의 돈을 소비하고 있었다.
 특히 D오락실은 인근 오락실중 '스트리트 파이터2'기종을 유난히 많이 확보하고 있어 학생들의 출입이 더욱 잦았다.
 이곳에서는 16대의 '스트리트 파



▲오즘 한창 많이 이용하고 있는 '스트리트 파이터2'.

스트레스해소용 아닌 과격한 싸움내용 대부분 우리정서에 맞는 놀이보급에 힘써야

이러'기계를 맞붙여 놓고 오락실 한가운데 나란히 배열해 2인이 서로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각자 싸움 사람을 선택해 마치 자기 자신이 직접 싸우는 것처럼 한대 맞을 때마다 육체를 내뿜는가 하면 만약 게임에서 질 경우 상대편 기계에 얇은 사람과 시비가 붙기도 한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은 그자리에

서 주먹싸움을 하는 등 그문제는 실로 심각하다.
 오락실에 가는 게 아니라 직접 싸우러 가는 것마냥 아이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지고 나면 울면서 집에 가는 아이들도 있었다.
 특히 오락하는 학생의 대부분은 노란머리이다 체격도 좋고 기술이 많은 미국국가가 새겨진 인물들 줄

져 선택하고 있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만든 폭력물이기에 더욱더 자국의 강한 면을 나타내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오락을 통해 음연중에 노란머리를 싸움 잘하는 트레이드 마크인양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 무력의 힘이 강렬하게 학생들에게 과포되고 있었으며 오락실

주인의 상술에 오락기계를 통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싸우는 학생들의 모습은 인성파괴의 장으로 오락실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연히 느끼게 했다.
 또한 강의없는 시간만 되면 달려와서 아무런 생각없이 몇천원의 돈을 소비하며 외래 폭력문물을 거리낌없이 적용하는 대학생들은 더욱 더 큰 문제라고 할수있다.
 이런 열광적인 손님력에 오락실에서는 한대당 하루 수입이 만오천 원가량이 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기계에 비하면 2~3배에 달하는 액수이다.
 오락실 주인은 "스트리트 파이터 2의 프로그램값이 1백20만원을 훨씬 웃도는 고가품이어서 적정했다는 게 비싸도 그만큼 제값을 한다"며 즐거워 했다.
 요즘은 상술이 극에 달해 또 미국프로레슬링을 모방해 스워치만 누르면 짤러나고 뺨과 머리는 '슈퍼스트리트', 칼로 죽이고 화면에 피가 튀기는 '다.디그로우'등의 오락 프로그램이 또다시 미국, 일본 등지에서 수입되고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놀이문화수입의 침식으로 그냥 방치되고 있는 우리 정서와, 우리 놀이문화 보존과 건설을 통한 우리 문화의 양성을 위한 대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젊은이들은 이런 제국주의 폭력적 문화에서 벗어나 우리 정서에 맞는 새로운 놀이문화를 건설하는 일의 시급함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박수호 기자)

대입수험생을 위한 직원노조 민박 편안한 잠자리 따뜻한 식사 제공

이기주의행패로 날로 냉혹해지는 사회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소식이 있는데, 본교 직원노조(위원장=이건배·경상대 교학계장)의 오는 12월17일 실시되는 92학년도 대학입학하고 사 수험생을 위한 민박 실시 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임시절 수험생들이 터무니없는 옷돈까지 주고 여관방에서 지내야 하는 불편과 과소비 등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민박은 지금까지 처음 있는 일로서 민박대상자는 수도권 이외지역 거주 학생 및 학부모로 약 3백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박제공은 본교소속 민박참가 희망 교직원들 가운데서 하게되는데, 주요제공내용은 시험전날 저녁, 숙박, 시험당일 아침, 점심도시락 등이다.
 한편 사별대학 지원 수험생과 경찰행정학과 지방 민박신청 수험생은 오는 12월18일 작성검사 및 신체검사 관례로 교직원들이 원할 경우는 민박을 하루 더 연장할 수도 있다.
 (이경애 기자)

민박참가신청접수는 오늘(20일)까지 노조사무실에서 받고,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원서교부및 접수기간에 체육관 원서접수 창구와 별도 마련한 민박상담소에서 수험생 민박희망 신청을 받는다. 또 오는 21일부터 12월12일까지는 노조 사무실과 본관수위실에서 전화로도 민박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오늘(20일)참가신청 접수결과에 따라 교수, 학생까지도 민박참가를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수험생 편의제공 및 서울 시내 숙박난해소, 학교의 대외홍보, 입학생의 애교심고취, 민박참여 직원의 소속감 및 봉사정신 고취를 유도할 수 있는 이번 민박은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황금만능주의, 이기주의사회에서 우리 민족의 따스한 정과 인간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미덕이 아닌가 한다.
 또 이번 민박은 직원에 대학의 엄연한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나서서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데 더욱 의의가 크다고 하였다.
 (이경애 기자)

◇남북한 여성대표자 세미나(25일~30일) 징검다리 역할로 통일에 한몫

분단이후 처음으로 북한 여성대표자들이 서울을 방문하게 된다.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되는 남북한 여성대표자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북측대표 15명(대표5명, 기자 및 수행원 10명)이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다.
 이번 서울토론회 주제는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로 둘째날(26일)토론회 I부 '가부장제문화와 여성(남측)', 토론회 II부 '통일과 여성(북측)', 셋째날(27일)토론회 III부 '평화와 여성(일본측)'으로 진행된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남북한 여성과 일본 여성들의 연대적 역할을 모색하고 남북한 여성교류를 통해 민족통일에 기여하는데 한걸음 나아가고자 하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 5월28일부터 6월4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열렸던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심포지엄에 이은 것이다.
 (문화부)

지난9일 판문점 중립국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예비회담에서 이미 한민족으로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 여성대표들은 통일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절실히 느끼기도 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순수한 민간 교류차원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제 통일은 국가차원이 아니라 남녀노소 할것없이 민간교류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문화부)

졸업을 앞두고

4년동안 몸담고 있었던 교정을 떠나게 될 학우들과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사은회가 한창이다.
 사은회가 점점 한창으로 흘러가는 요즘 이 지면을 빌어 졸업생 사은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교수, 4학년학생의 편지글을 실는다. (편집자)

몸은 비록 떠나지만 사제간의 정은 영원히...

오랜 정치적 암흑기가 벗어낸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칫 사제간의 아름다운 정분마저 잃어버리고 대립과 투쟁의 모습만을 취해온 듯했던 우리의 표정에도 사은회 석상에서 아쉬움의 미소가 깃든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새겨 보고, 회비의 순간들을 가슴에 담아보며 새로운 삶을 위한 따스한 격려를 나누는 모임이 바로 사은회인 것이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서도 흘러간 순간 순간들이 아파게 느껴지는 것은 아직도 그들에 대한 사랑이 내겐 너무나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리라.

우리의 가슴에 박혀 오는 것이다.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다는 웰리의 말을 그대로에게 전한다.

저 주먹싸움을 하는 등 그문제는 실로 심각하다. 오락실에 가는 게 아니라 직접 싸우러 가는 것마냥 아이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지고 나면 울면서 집에 가는 아이들도 있었다. 특히 오락하는 학생의 대부분은 노란머리이다 체격도 좋고 기술이 많은 미국국가가 새겨진 인물들 줄

제자들에게

매년 졸업생 사은회에 참석할 때마다 나는 새로운 다짐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얼마나 많은 학문적 대화와 삶의 교보를 나눠왔을까. 생활의 분주함을 핑계로 그들과의 만남을 꼭 소홀히 하지는 않았을까. 선생이라는 경직된 입장만은 고집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어른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順天者는 興하고 逆天者는 亡한다"는 경구.
 이 말씀을 저는 몸 흐르는 자연스러운, 내년 봄을 기다려 낙엽을 떨구는 이치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헛 천 렉 (야간강좌 영문과 교수)

헛 천 렉 (야간강좌 영문과 교수)

겨울이 오면 봄은 멀지 않기 마련, 거친 사회속의 주역 되길...

목소리 높은 학생들에 기가 질려 그저 피해하는 도덕의 고염만을 주으려 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저런 근색한 변명을 떠올리면서도 사은회가 갖는 의미는 의연할 수 없음을 선생만이 간직하는 제자에 대한 애정 때문인 것 같다.

올해의 사은회는 유독 울씨느스럽고 침체된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었다. 떠나는 이들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제간의 정감이 다소 소홀해진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 하겠다. 교수들의 참석수도 부족했고, 학생수도 얼마 되지 않았다. 별리의 순간을 음미하려는 우리의 고운 마음의 물기가 그만큼 메말랐기 때문일까. 값비싼 호텔이 모임장소로 선택된데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일까. 아니면 사제간의 따스로운 정이 그 멀도를 잃었기 때문일까.

헛 천 렉 (야간강좌 영문과 교수)

헛 천 렉 (야간강좌 영문과 교수)

일간지에서는 뉴스를, 시사저널에서는 비전을!



시사저널의 눈과 귀가 되어주십시오

현장에서 떨어져 있는 언론인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생생한 현장 그 자체만큼 훌륭한 기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 주간지중 최대의 기자와 해외특파원을 둔 시사저널이라고는 하지만 현장취재에 아쉬움을 느끼는 마참까지입니다. 특히 우리사회의 구조적 부정부패 해결, 환경오염 방지, 통일정책 제시 등을 3대 집중기획으로 다루는 시사저널로서는 짧은 지성인의 목소리가 더욱 소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사저널의 눈과 귀가 되어주십시오. 시사저널은 3대 집중기획에 대한 지성인들의 제보와 고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 현장을 객관적 시각으로 심층 취재함으로써 한국지성의 자존심을 대표하겠습니다. 사실과 진실만의 명쾌한 시사주간지 시사저널 - 시사저널과 함께 우리의 현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정립하십시오.

시사저널

WEEKLY NEWS MAGAZINE
 정기구독신청 733-3330 ■ 정기구독지 특별혜택...
 *1년구독료 78,000원(52 * 1,500)을 69,000원에 모금하여 드립니다.